

지역 소식통

정읍시 '명상숲' 조성

정읍시가 지역 내 초등학교에 나무를 심고 벤치 등을 편의시설을 설치해 명상숲을 조성한다.

학교의 방치된 공간과 용도가 불분명한 장소를 학생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겠다는 취지다. 관련해서는 이달까지 총사업비 1억 8천여만 원을 들여 영산초·보성초·이평초에 명상숲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팝나무 등 교목과 나무수국 등 관목, 백리향 등 초화류를 식재하고 벤치를 놓고 산책로를 만든다.

명상숲 조성으로 학생들은 교과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식물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고, 지역 주민들은 편의시설을 갖춘 녹색 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명상숲 조성 공모를 통해 4개 학교의 신청을 받고 서류검토와 현장심사를 거쳐 3개 학교를 선정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행정투명성 확보

고창군은 6일 군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 공개율이 100%로 전국 평균 95%보다 높은 수치이며, 전라북도 시군에서 공개율이 최고라고 밝혔다.

군은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운영에 대한 군민의 참여와 행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20년 4월말 기준 고창군의 정보공개 청구건수는 총 664건으로 전부공개 424건, 부분공개 32건, 비공개 0건 등 456건을 처리했고, 취하, 정보부존재 등이 208건으로 나타났다.

정보공개청구는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1998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최초 시행한 연도와 비교하면 청구건수는 전국적으로 40배이상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정보공개 청구의 증가에도 군의 정보공개율은 2018년 96%, 2019년 98%, 2020년 현재 100%로 정책 추진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통한 정책결정 과정의 정당성 확보와 책임행정을 실현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재난지원금 받아주세요”

정읍시, 전 시민에 지급... 11일부터 온라인 등 신청가능 취약계층은 별도 신청없이 지난 4일부터 본격 지급 시작

정읍시가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긴급 재난 지원금을 지난 4일 취약계층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지급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됨에 따라 총 315억 원 규모의 국비 283억 원, 도비 26억 원, 시비 26억 원을 투입해 전 시민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시는 취약계층인 생계 급여 수급자와 기초연금 대상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1만4천532가구에 지난 4일 67억 원을 현금으로 우선 지급했다. 현금 수급 대상이지만 금융계좌가

해지됐거나 예금주명 불일치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오류검정 과정을 거쳐 8일까지는 지급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현금 수급 대상이 아닌 일반 시민은 5월 11일부터 6월 18일까지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충전하거나 정읍시 선불카드로 선택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희망하는 경우는 11일부터 세대주가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고, 지원금은 13일 충전된다. 또한,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정읍시 선불카드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원하는 시민은 18일부터 정읍시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대상 여부와 지원금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를 통해 세대주 본인 인증 후 확인할 수 있다.

유진섭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일자리를 잃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전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정읍시에서 지원하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에도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속히 지급해 시민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 황토 땅에서 자란 햇감자 호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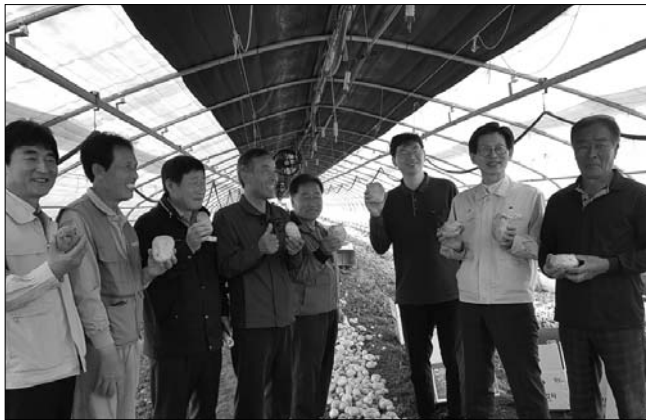
유기상 군수, 수확현장 방문

고창은 코로나19로 어려운 농업 현실에도 불구하고 농가들이 열정을 가지고 황토땅에서 재배한 햇감자를 수확해 전국 소비자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전 지역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된 고창군은 서늘한 해풍과 풍부한 일조량으로 감자가 자라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 특히 고창은 게르마늄과 미네랄 등 영양이 풍부한 황토 땅에서 자라 맛과 품질이 뛰어나다.

고창군 황토 땅에서 자란 햇감자는 지난달 28일부터 올해 첫 수확에 들어갔다. 6일에유기상 고창군수가 본격적인 햇감자 수확에 들어간 공음면 정재용씨 농가의 수확 현장을 찾아 격려했다. 이번 햇감자 수확에 들어간 선운산 연구회(회장 박종환)는 25농가에 26.4ha 면적으로 고창군 감자를 선도

하는 단체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코로나19로 어



지난 6일 유기상 고창군수가 본격적인 햇감자 수확에 들어간 공음면 정재용씨 농가의 햇감자 수확 현장을 찾아 격려했다.

려운 농업 현실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며 “고창감자가 전국 최고의 품질로 소비자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사업’ 전개

정읍시와 정읍시 교육지원청은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학교급식이 장기간 중단됨에 따라 관료에 어려움을 겪는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를 돕고,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학부모의 식비 부담 경감을 위해 마련됐다.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

급사업은 기존의 ‘학생 무상급식 지원사업’을 대체한 것으로 총사업비 3억8천만원이 소요되며 정읍시와 정읍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사업비를 부담한다.

공급대상은 지역 내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 재학생 106개교 1만 1,864명으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학생 가구다. 1인당 택배비를 포함해

392천원 상당 꾸러미를 6월부터 오는 10월까지 순차적으로 제공한다.

품목은 정읍시 학교 급식비 지원 심의회에서 정읍에서 생산한 친환경 쌀·잡곡과 농산물, 도내산 신선 채소류 등 총 7종으로 구성했다.

유진섭 시장은 “이번 사업이 학교급식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와 학생, 학부모, 친환경학교급식센터, 배송업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1석 5조의 효과를 거두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는 2020년 친절행정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민원 친절도를 높이기 위해 매월 1회 직원들을 대상으로 친절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시민 감동 친절행정 팔견어

유진섭 정읍시장, 매일 직원대상 친절마인드 개선 교육

정읍시가 시민 중심의 열린 민원행정 구현을 목표로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적극행정마인드 함양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시는 2020년 친절행정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민원 친절도를 높이기 위해 매월 1회 직원들을 대상으로 친절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5월 교육에는 가정의 달을 맞아 특별히 유진섭 시장이 직접 나섰다. 유 시장은 종합민원과 소속직원들과 세무, 건축, 교통, 한국토지정보공사 파견직원을 포함 50여 명을 대상으로 친절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민원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에 대해 논하고, 다양한 친절·불친절 사례를 함께 공유해 주어진 체감하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전화 민원처리 시 친절한 표현 등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 중심으로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유 시장은 민원인에 대한 친절행정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친절도 향상을 위한 마인드 함양을 강조했다. 또,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직원 스스로 친절에 대해 끊임없는 자기진단과 자기개발을 하고, 최고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 시장은 “공직자에게 친절은 기본 소양으로 시민을 배려하고 봉사하는 자세로 소통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론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서는 평소 업무를 속지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종합민원실 창구에 가림막을 설치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 동진면 예궁원, 친환경 참뽕오디올 첫 수확

권익현 부안군수 현장 방문

부안군 동진면 봉황리에 위치한 예궁원 시설하우스에서 친환경 부안 참뽕오디가 올해 첫 수확을 시작했다.

예궁원 대표 홍석렬씨는 지난 2014년부터 1653㎡ 연동하우스에서 무가온 친환경 참뽕오디를 생산하고 있으며 노지재배보다 20일 이상 빠른 수확으로 매년 2톤 이상을 생산해 전자상거래와 직거래를 통해 2400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부안 참뽕오디는 지리적표시제 등록 농산물로 예로부터 향산화 효과와 건강기능성이 널리 알려져 봄에 꼭 챙겨 먹어야 할 필수 농산물로 꼽히고 있다. 특히 권익현 부안군수는 최근 코

로나19로 수확 인력과 농산물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힘을 보태고자 6일 예궁원 오디수확 현장을 방문해 일손을 돕고 예로사항을 청취했다. 부안군은 시설오디 뿐만 아니라 노지오디도 본격적인 수확을 앞두고 있는 만큼 대중매체와 홀쇼핑 SNS 등을 통해 오디의 건강기능성을 부각시키고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오디 판매 촉진을 힘을 보낼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친환경 자재 및 맞춤형 비료, GAP 인증, 방동차고, 규격출하 유통박스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오디농가의 경쟁력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